

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자료 · EDU-02

돈·계좌·결제·예금의 기초

거래 도구의 구조와 권리를 이해하고, 계좌와 결제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교수자용 지도서

본문 10.5pt 이상 · 내용 기준 2026-08-24 · NEXUS FMI 국민 금융생활 안전교육

교수자 안내

설명보다 학습자의 실제 기록·선택 이유·도움 요청 문장을 확인한다. 피해·채무·질병·가족갈등을 공개하도록 압박하지 않는다.

수업 목표

- 현금·계좌·카드·간편결제·후불결제의 쓰임과 위험을 설명한다.
- 목적과 상환 능력에 맞는 결제 수단을 비교한다.
- 이자·물가·환율·수수료·예금보호 표시를 읽는다.
- 연결 계좌·거래 내역·자동이체·구독을 매달 점검한다.

교과 해설 · 왜 가르치고 왜 이 순서인가

계좌와 결제수단은 돈을 담는 곳이 아니라 생활을 움직이는 약속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예정된 자동이체와 카드대금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돈이 빠지는 날과 빛이 되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잔액·출금일·후불·예금보호를 먼저 이해하면 사례에서 무엇을 비교하고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이 보호하려는 생활영역

- 식비·교통비 등 당장 쓸 돈
- 결제일의 잔액
- 예금의 보호 범위
- 계좌·카드 연결 권한
- 오입금·부정사용 대응 시간

개념의 선후관계

순서	개념	다음 학습으로 이어지는 이유
1	계좌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2	잔액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3	즉시결제와 후불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4	자동이체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5	예금보호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교수자가 지킬 설명 원칙

- 계좌를 통장 모양이 아니라 기록과 권리가 있는 계약으로 설명합니다.
- 체크·신용·후불을 혜택이 아닌 출금 시점과 상환 의무로 비교합니다.
- 예금보호는 보호상품·금융회사·한도라는 조건을 함께 말하게 합니다.
- 학습자의 실제 잔액 대신 가상 숫자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필수개념 지도표

계좌

금융회사가 내 돈의 입출금과 잔액을 기록하는 계약입니다.

- 생활 예: 급여계좌에서 월세와 통신비가 자동으로 나갑니다.
- 반대 예: 통장이라는 물건 자체가 돈을 보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연결: 계좌의 명의자·상품 종류·출금 조건이 권리와 책임을 정합니다.
- 이해확인: 같은 금융회사 계좌면 모두 같은 상품인가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예금·투자상품 등 종류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잔액

화면에 남아 있다고 표시된 돈입니다.

- 생활 예: 잔액 20만원에서 내일 카드대금 15만원이 빠질 예정입니다.
- 반대 예: 잔액 전부를 지금 자유롭게 써도 되는 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잔액은 예정 출금·미결제 금액과 함께 봐야 실제 사용 가능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이해확인: 잔액이 20만원이면 오늘 20만원을 모두 써도 되나요?

도달 기준: 예정 출금과 미결제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결제와 후불

지금 계좌에서 빠지는 결제와 나중에 갚는 결제의 차이입니다.

- 생활 예: 체크카드는 잔액에서 빠지고 신용카드 할부는 다음 달 이후 갚습니다.
- 반대 예: 후불결제를 할인이나 포인트와 같은 혜택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 연결: 후불은 미래 소득을 먼저 쓰는 빚이므로 상환일과 총비용을 봅니다.
- 이해확인: 월 납부액이 작으면 부담도 항상 작은가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기간과 수수료를 합친 총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정해진 날에 반복해서 돈이 빠져나가도록 한 약정입니다.

- 생활 예: 매월 10일 보험료가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반대 예: 앱을 삭제하면 자동이체도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연결: 자동이체는 원래 계약의 해지와 출금 연결 해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이해확인: 서비스 앱을 지우면 다음 달 결제도 멈추나요?

도달 기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자동납부 해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보호

금융회사가 지급하지 못할 때 보호 대상 예금을 법정 범위에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 생활 예: 보호 대상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금융회사별 한도 안에서 봅니다.
- 반대 예: 금융회사에서 파는 모든 상품이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연결: 예금보호는 상품 종류·금융회사·명의·적용 시점의 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 이해확인: 펀드도 금융회사 창구에서 샀으면 예금보호 대상인가요?

도달 기준: 일반적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펀드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개념 설명 수업안

각 단원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원리 설명-판단 순서-생활 사례-오개념 교정-확인문제의 순서로 지도합니다.

1. 계좌·잔액·사용가능액

도입 질문: 통장에 보이는 돈은 모두 지금 쓸 수 있을까요?

계좌는 금융회사가 입금과 출금, 잔액을 기록하고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통장이나 앱은 그 기록을 보여 주는 수단입니다.

표시 잔액에는 예약이체, 승인됐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결제, 출금 제한 금액 등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판단 순서 1: 현재 잔액을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2: 예정된 자동이체와 카드 결제액을 뺍니다.
- 판단 순서 3: 남은 금액 중 필수생활비를 제외해 실제 사용가능액을 계산합니다.
- 시범 사례: 잔액이 40만원이지만 내일 카드대금 25만원과 월세 10만원이 빠진다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5만원 이하입니다.
- 바로잡을 오해: 잔액이 플러스이면 새 결제를 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결제 시점이 다른 의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 확인 질문: 잔액 30만원, 이틀 뒤 자동이체 18만원이면 20만원을 써도 될까요?

도달 기준: 그대로 쓰면 자동이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정 지출과 필수생활비를 먼저 빼야 합니다.

2. 결제수단과 돈이 빠지는 시점

도입 질문: 같은 1만원 결제도 왜 다를까요?

현금과 체크카드는 대체로 현재 가진 돈을 바로 사용합니다. 신용카드와 후불결제는 지금 물건을 받고 나중에 갚는 짧은 신용계약입니다.

간편결제는 별도의 돈이 아니라 연결된 계좌나 카드가 실제 결제수단이므로 어느 수단과 연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 순서 1: 결제수단이 계좌·체크·신용 중 무엇인지 봅니다.
- 판단 순서 2: 돈이 빠지는 날짜와 한도를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3: 취소·환불 때 돈이 돌아오는 경로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 시범 사례: 간편결제 앱에서 결제했지만 연결수단이 신용카드라면 다음 카드 결제일에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 바로잡을 오해: 휴대전화로 결제했으니 통신비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청구 주체와 결제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질문: 간편결제 잔액이 없으면 결제가 되지 않을까요?

도달 기준: 연결된 카드나 계좌에서 결제될 수 있으므로 설정된 결제수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동이체와 반복계약

도입 질문: 한 번 동의한 결제가 왜 계속될까요?

자동이체는 정해진 조건과 날짜에 반복해서 출금하도록 미리 동의한 것입니다. 서비스를 쓰지 않아도 계약이 남아 있으면 출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제를 막는 것과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일 수 있으므로 양쪽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 순서 1: 출금명과 금액, 주기를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2: 연결된 서비스 계약과 해지 조건을 찾습니다.
- 판단 순서 3: 해지 결과와 마지막 결제 여부를 기록합니다.
- 시범 사례: 무료체험 뒤 매달 1만5천원이 결제되는 경우, 카드 연결만 끊기보다 서비스의 구독 해지를 완료하고 확인 화면을 보관합니다.
- 바로잡을 오해: 앱을 삭제하면 구독도 끝난다는 생각은 흔한 오해입니다. 계약 해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질문: 자동이체를 은행에서 막으면 계약상 납부의무도 없어질까요?

도달 기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출금 중단과 계약 해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4. 예금보호와 잘못 보낸 돈

도입 질문: 은행에 맡긴 돈과 송금한 돈은 어떻게 보호될까요?

예금보호는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지급하지 못할 때 법정 한도에서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금융상품과 모든 손실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착오송금은 보낸 사람의 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이 간 경우이며 자동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반환 요청과 반환지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 순서 1: 상품의 예금보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2: 금융회사별·명의자별 계산 기준을 봅니다.
- 판단 순서 3: 송금 실수는 즉시 금융회사에 알리고 접수번호를 기록합니다.
- 시범 사례: 수취인 이름이 비슷해 잘못 송금했다면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하기보다 먼저 송금 금융회사의 공식 절차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 바로잡을 오해: 은행 앱에서 산 상품이면 모두 예금보호된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확인 질문: 송금 버튼을 누른 뒤 바로 취소하면 언제나 돌아올까요?

도달 기준: 자동 취소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범풀이 지도

월금날보다 빠른 카드 결제일

월금은 25일 들어오지만 카드대금 40만원은 20일 빠져나갑니다. 현재 잔액은 35만원입니다.

- 결정: 결제일까지 부족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보: 잔액·예정 출금·월급일을 한 줄에 적습니다.
- 위험: 5만원 부족으로 연체될 수 있습니다.
- 행동: 불필요한 지출을 멈추고 결제일 조정 가능성을 공식 창구에 묻습니다.
- 기록: 상담 내용과 변경 결과를 남깁니다.

60분 핵심 수업에서도 '왜 배우는가·필수개념·개념 작동 과정·시범풀이'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사례 수를 줄이되 기초학습은 줄이지 않습니다.

보강 주제 지도안

기존 기초개념을 최근 생활 장면에 적용합니다. 적용 조건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출처와 검토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오픈뱅킹·마이데이터는 연결 범위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한 화면에서 여러 계좌와 정보를 보는 편의는 커지지만, 어느 기관에 어떤 조회·전송 권한을 주었는지 잊기 쉽습니다.

하지 않을 것: 앱을 지우면 모든 동의와 계정 연결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연결 기관, 제공 정보, 이용목적, 유효기간, 철회·해지 경로를 공식 앱의 동의관리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쓰지 않는 서비스는 연결을 해제하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계좌·자동이체를 정기 점검합니다.

공식 근거: 금융결제원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검토 2026-08-24

<https://www.payinfo.or.kr/>

다크패턴은 선택을 재촉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무료체험 뒤 자동결제, 미리 선택된 동의, 반복되는 긴급 문구는 사용자가 충분히 비교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것: 버튼 색과 화면 순서만 따라 결제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결제 전 총액·반복주기·무료기간 종료일·해지경로·환불조건을 한 화면씩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결제 직후 확인메일과 해지화면을 저장하고, 달력에 무료기간 종료 전 점검일을 적습니다.

공식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 검토 2026-08-24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2957>

60분 핵심 수업안

시간	활동	교수자 확인
0~5분	생활장면·학습 이유	이 학습이 지키는 생활영역 확인
5~15분	용어와 개념카드	뜻·예·반대 예·개념 관계 확인
15~30분	개념 작동 과정	원리·판단 순서·생활 사례·오개념 확인
30~38분	시범풀이	교수자가 판단과정을 소리 내어 보여 줌
38~50분	사례 1개	즉시·나중 결과와 추가정보 비교
50~60분	행동·권리·다음 학습	기초 확인문제와 실행 날짜 확인

90분 수업안

시간	활동	산출물
0~10분	진단·학습계약	개인정보·발언 선택권 확인
10~25분	Part 2·3 구조읽기	용어 8개 생활 예시
25~45분	Part 4 비교도구	비교표 1장
45~70분	사례 5개 모둠실습	선택·근거·추가정보·다음 행동
70~82분	권리·지원 역할연습	도움 요청 문장
82~90분	사후평가·30일 약속	개인 행동계획

다섯 사례 운영 질문

1. 첫 월급 통장

첫 월급을 한 계좌에 두려 한다. 예금자보호 로고가 보이지만 상품 설명은 읽지 않았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보호는 상품과 금융회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추가정보: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펀드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금융회사별 보호 한도와 보호상품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비·비상금을 구분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로고만 보고 모든 상품이 보호된다고 생각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금리가 가장 높은 곳 하나에 전액을 둔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2. 세 가지 결제

같은 물건을 체크카드·신용카드 할부·후불결제로 살 수 있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월 납부액이 아니라 값을 날짜와 총비용을 본다.
- 추가정보: 후불 수단은 이름과 관계없이 미래 소득을 먼저 쓰는 계약이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출금일·할부비용·다음 달 필수지출을 표에 적어 비교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월 납부액이 작아 보이는 수단을 고른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혜택 문구가 가장 큰 수단을 고른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3. 무료 체험의 다음 달

무료 체험 뒤 매달 결제가 시작됐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앱 삭제와 계약 해지는 다르다.
- 추가정보: 자동납부와 구독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와 사업자 화면을 함께 확인한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약정·결제내역을 확인하고 해지한 뒤 완료 화면을 보관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앱만 삭제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계좌 잔액을 비워 결제를 막는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4. 잘못 보낸 송금

수취인을 잘못 선택해 송금했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반환 지원은 빠른 접수와 정확한 기록이 중요하다.
- 추가정보: 임의로 상대방 정보를 퍼뜨리거나 회수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즉시 금융회사에 반환 지원을 요청하고 거래 정보를 보존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수취인에게 위협 메시지를 보낸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다음 달까지 기다린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5. 해외 결제

해외 사이트 가격은 싸지만 결제 통화와 수수료가 다르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환율과 수수료를 포함한 원화 총액을 본다.
- 추가정보: 해외 결제 차단·알림 설정과 카드정보 보관 범위도 확인한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현지통화·원화결제 금액과 환율·수수료·환불조건을 비교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표시 가격만 보고 결제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카드 정보를 메시지로 보낸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오개념 바로잡기

오개념: 체크카드는 무조건 안전하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오개념: 예금보호 로고가 있으면 모든 상품이 보호된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오개념: 앱을 지우면 구독도 끝난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평가 해설

1. 돈·계좌·결제·예금의 기초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

정답 A. 목적: 오늘 지출인지, 반복 지출인지, 해외 지출인지 적는다.

- A.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목적: 오늘 지출인지, 반복 지출인지, 해외 지출인지 적는다.
- B. 이 선택은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목적: 오늘 지출인지, 반복 지출인지, 해외 지출인지 적는다.
- C. 이 선택은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목적: 오늘 지출인지, 반복 지출인지, 해외 지출인지 적는다.
- D. 이 선택은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목적: 오늘 지출인지, 반복 지출인지, 해외 지출인지 적는다.

2.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

정답 B. 비용·위험·기한·보호·증거

- A. 이 선택은 '현재 보이는 금액만'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 B.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 C. 이 선택은 '광고 순위와 후기 수'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 D. 이 선택은 '친구가 선택한 상품'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3.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

정답 C. 계약서·설명·거래·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

- A. 이 선택은 '기억해 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 B. 이 선택은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 C.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 D. 이 선택은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4.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답 C. 신청·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

- A. 이 선택은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 B. 이 선택은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 C.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 D. 이 선택은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5.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

정답 C.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기한·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

- A. 이 선택은 '추가 차입·송금으로 시간을 번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 B. 이 선택은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 C.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 D. 이 선택은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6. 사례 '첫 월급 통장'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금융회사별 보호 한도와 보호상품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비·비상금을 구분한다.

- A. 보호는 상품과 금융회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펀드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 B. 이 선택은 '로고만 보고 모든 상품이 보호된다고 생각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보호는 상품과 금융회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펀드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 C. 이 선택은 '금리가 가장 높은 곳 하나에 전액을 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보호는 상품과 금융회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펀드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보호는 상품과 금융회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펀드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7. 사례 '세 가지 결제'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출금일·할부비용·다음 달 필수지출을 표에 적어 비교한다.

- A. 월 납부액이 아니라 갚을 날짜와 총비용을 본다. 후불 수단은 이름과 관계없이 미래 소득을 먼저 쓰는 계약이다.
- B. 이 선택은 '월 납부액이 작아 보이는 수단을 고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월 납부액이 아니라 갚을 날짜와 총비용을 본다. 후불 수단은 이름과 관계없이 미래 소득을 먼저 쓰는 계약이다.
- C. 이 선택은 '혜택 문구가 가장 큰 수단을 고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월 납부액이 아니라 갚을 날짜와 총비용을 본다. 후불 수단은 이름과 관계없이 미래 소득을 먼저 쓰는 계약이다.

는 계약이다.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월 납부액이 아니라 갚을 날짜와 총비용을 본다. 후불 수단은 이름과 관계없이 미래 소득을 먼저 쓰는 계약이다.

8. 사례 '무료 체험의 다음 달'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약정·결제내역을 확인하고 해지한 뒤 완료 화면을 보관한다.

A. 앱 삭제와 계약 해지는 다르다. 자동납부와 구독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와 사업자 화면을 함께 확인한다.

B. 이 선택은 '앱만 삭제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앱 삭제와 계약 해지는 다르다. 자동납부와 구독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와 사업자 화면을 함께 확인한다.

C. 이 선택은 '계좌 잔액을 비워 결제를 막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앱 삭제와 계약 해지는 다르다. 자동납부와 구독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와 사업자 화면을 함께 확인한다.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앱 삭제와 계약 해지는 다르다. 자동납부와 구독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와 사업자 화면을 함께 확인한다.

9. 사례 '잘못 보낸 송금'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즉시 금융회사에 반환 지원을 요청하고 거래 정보를 보존한다.

A. 반환 지원은 빠른 접수와 정확한 기록이 중요하다. 임의로 상대방 정보를 퍼뜨리거나 회수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B. 이 선택은 '수취인에게 위협 메시지를 보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반환 지원은 빠른 접수와 정확한 기록이 중요하다. 임의로 상대방 정보를 퍼뜨리거나 회수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C. 이 선택은 '다음 달까지 기다린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반환 지원은 빠른 접수와 정확한 기록이 중요하다. 임의로 상대방 정보를 퍼뜨리거나 회수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반환 지원은 빠른 접수와 정확한 기록이 중요하다. 임의로 상대방 정보를 퍼뜨리거나 회수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0. 사례 '해외 결제'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현지통화·원화결제 금액과 환율·수수료·환불조건을 비교한다.

A. 환율과 수수료를 포함한 원화 총액을 본다. 해외 결제 차단·알림 설정과 카드정보 보관 범위도 확인한다.

B. 이 선택은 '표시 가격만 보고 결제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환율과 수수료를 포함한 원화 총액을 본다. 해외 결제 차단·알림 설정과 카드정보 보관 범위도 확인한다.

C. 이 선택은 '카드 정보를 메시지로 보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환율과 수수료를 포함한 원화 총액을 본다. 해외 결제 차단·알림 설정과 카드정보 보관 범위도 확인한다.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환율과 수수료를 포함한 원화 총액을 본다. 해외 결제 차단·알림 설정과 카드정보 보관 범위도 확인한다.

민감한 상황 대응

- 피해·연체·가족갈등 경험을 전체 앞에서 말하게 하지 않는다.
- 즉시 위험·범죄·자해 위험이 있으면 교육보다 안전과 기관 연계를 우선한다.
- 교수자가 법률·세금·투자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적용 시점의 공식 상담을 연결한다.
- 개인 활동지는 수거를 최소화하고 보관·폐기 기준을 사전에 알린다.

수준별·상황별 조정

학습 상황	조정 방법	지켜야 할 기준
청소년·초보	용어를 생활 장면과 그림으로 먼저 설명	계약 책임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음
저문해·이주민	한 문장 한 정보, 숫자·날짜를 크게 표시	통역·쉬운 자료 제공 여부 확인
고령·시각 불편	큰 글씨와 소리 내어 읽기, 충분한 응답시간	대신 결정하지 않고 본인 의사 확인
피해 경험자	가상사례와 비공개 선택지 사용	경험 공개·책임 추궁 금지

수행평가 루브릭

기준	기초	도달	확장
구조 이해	용어를 찾는다	돈·책임·기한을 설명한다	예외와 변동 가능성을 말한다
비교 판단	한 요소를 본다	총비용·위험·권리를 비교한다	최악 시나리오와 중단 기준을 정한다
행동·기록	행동을 고른다	날짜·근거·증거를 적는다	공식 기관에 묻는 문장을 작성한다
권리·지원	기관을 안다	알맞은 기관을 고른다	다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한다

자료 업데이트 점검

내용 기준일 2026-08-24, 다음 정기점검 2026-11-20. 숫자·기한·기관명·URL·법령 개정 여부를 수업 전에 다시 확인한다.

점검 대상	질문	기록
법·제도	시행일·대상·예외가 바뀌었는가	확인 URL·날짜

점검 대상	질문	기록
숫자·기한	한도·세율·신청기한이 유효한가	공식 문서 제목
기관·서비스	명칭·전화·주소·절차가 유효한가	접속·전화 결과
사례	과장·낙인·단정이 없는가	수정 사유

교수자료 A · 개념·경계 지도

이 모듈이 담당하는 역량과 다른 모듈로 넘겨야 할 내용을 구분한다.

영역	이 모듈에서 다룰 것	수업에서 단정하지 않을 것
이해	현금·계좌·카드·간편결제·후불결제의 쓰임과 위험을 설명한다.	개별 계약의 최종 법률효과
비교	목적과 상환 능력에 맞는 결제 수단을 비교한다.	미래 가격·금리·수익의 예측
행동	이자·물가·환율·수수료·예금보호 표시를 읽는다.	모든 학습자에게 같은 정답 강요
권리	연결 계좌·거래 내역·자동이체·구독을 매달 점검한다.	기관의 최종 결정·판결 결과

교차 모듈

- EDU-01 금융사기 예방
- EDU-15 금융분쟁·조정

교수자료 B · 수업 전 최종 검증표

수업 당일에도 공식 근거와 접근성을 다시 확인한다.

검증 항목	완료	메모
공식 URL 접속과 적용 기준일	☐	
한도·기한·기관명 최신성	☐	
본문·화면 글자 크기와 대비	☐	
활동지 개인정보 최소화	☐	
민감 경험 비공개 선택권	☐	
상담·신고 연결 방법	☐	
60분·90분 시간 배분	☐	
사전·사후평가 동일 역량	☐	

공식 확인처

- 금융위원회 · 예금보호 1억원 안내 · <https://www.korea.kr/multi/mediaNewsView.do?newsId=148952118>
- 금융결제원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https://www.payinfo.or.kr/>
- 한국은행 · 경제교육 · <https://www.bok.or.kr/portal/main/main.do>
-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https://fine.fss.or.kr/>